

##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은 종족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가?\*

김기현(선문대 스페인어중남미학과)\*\*

- I. 서론
- II. 인구비중을 통해 본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존재
- III.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은 종족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가?
- IV. 결론을 대신하여: 원주민 정체성 회복을 넘어서

### I. 서론

종족의 문제가 라틴아메리카 정치의 주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원주민들이 인구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들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족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그들의 정치를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볼리비아에서는 원주민 정체성을 내세우는 사람이 이미 대통령이 되었으며, 에콰도르에서는 원주민 조직들의 동의 없이 누구도 대통령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멕시코도 사파티스타 운동 이후 원주민의 존재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으며, 과테말라와 페루의 원주민들도 점진적으로 종족성 정치에 관심을 가지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 Ki-Hyun Kim(Sun Moon University, Department of Spanish, Latin American Studies, drkhkim@sunmoon.ac.kr), “¿Están reivindicando la identidad étnica los indígenas latinoamericanos?”.

게 되었다.

그런데 종족성 정치의 출발은 정체성의 문제로 시작된다. 왜냐하면 종족 정체성의 회복 없이 종족성의 정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에서 부각되고 있는 종족성의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 이들 국가에서 원주민 종족 정체성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1990년대 이전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정책은 주로 메스티사헤(mestizaje)를 통한 인종적 혼혈과 문화적 통합이었다. 그러나 메스티사헤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언어와 관습도 비록 원래 형태 그대로는 아니지만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원주민들에 대한 문화적 편견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원주민들의 경제사회적 차별도 지속되고 있다.<sup>1)</sup> 이런 상황에서 원주민들은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종족 정체성 회복을 통해 조직화를 시도하고, 정치적 참여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주민들의 종족 정체성 회복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굳이 메스티사헤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미 라틴아메리카에 순혈의 원주민, 순수한 원주민 문화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메스티사헤의 주장에 따르면 원주민의 종족 정체성 회복이라는 말은 사실 의미 없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원주민의 종족 정체성 회복은 단순히 순수한 형태의 원주민 문화를 복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과거에 농민으로서의 계급 정체성을 가졌던 원주민들이 최근에는 종족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의미이지 원주민 문화의 원형을 복원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원주민들이 메스티사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메스티사헤의 규범적 모델에도 도전하고 자신의 종족성을 찾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 원주민과 흑인들에 대한 문화적 편견에 관해서는 김기현(2009)을, 원주민과 흑인들에 대한 경제사회적 차별에 대해서는 Hall and Patrinos(2006)과 CEPAL(2006)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원주민들의 종족 정체성 회복이라는 문제는 어쨌든 메스티사헤의 존재로 인해 매우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스페인의 정복 이래 라틴아메리카에서 메스티사헤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메스티사헤는 인종 간의 혼혈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혼종문화를 만들어 냈다.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와 같은 나라들에서 메스티사헤는 과거 500년 동안 국가의 이데올로기로서 하나의 규범이 되어왔다(Miller 2004). 따라서 원주민 종족 정체성 회복도 바로 메스티사헤에 노출된 원주민들이 어떻게 자신의 종족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는가 하는 문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즉 원주민 종족 정체성 회복의 문제는 결국 원주민들의 메스티사헤 여부보다는 그러한 메스티사헤의 역사적 존재를 현재 원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된다. 오늘날 원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메스티사헤가 적은 지역 사람들이기보다 오히려 메스티사헤가 더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바로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 종족 정체성 회복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원주민 인구가 중요성을 지니는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들에서 원주민 종족 정체성의 회복이 어떤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즉 원주민 종족 정체성 회복이 주로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에 앞서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존재를 그의 인구비중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권리 주장을 시작했기 때문이지만, 그러한 정치적 부상이 가능했던 것은 또한 어떤 형태로든 원주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복 이래 혼혈이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이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인종적 문화적 통합을 이루어내지는 못했다. 따라서 원주민도 사라지지 않았

다. 오히려 절대적 수치로 보면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수는 정복 이전의 수준을 넘어섰다. 비록 500년 전 원래 그대로의 형태는 아니지만, 고유의 문화와 경제적 방식을 유지하고,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원주민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원주민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지만 절대적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원주민의 엄연한 존재야말로 그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주역임을 말해주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다.

물론 원주민어를 사용하고 자신을 스스로 원주민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이들 원주민이 종족 정체성을 회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노동자가 스스로를 노동자로 인식한다고 해서 반드시 계급의식을 실현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웨이드(Wade 1997, 17)에 따르면 종족성(ethnicity)의 개념은 원래 인종(race)의 완곡한 표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차 인종이 생물학적 특성을 강조한 데 비해, 종족은 문화적 차이를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종족성이 쓸모 있는 자원이나 정치적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들의 배타적인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 이용되는 문화적 산물로 이해되어 진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종족 정체성이라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사람을 분류하기 위한 방식의 산물, 즉 인간의 심리적 구성에 따라 형성되는 하나의 기본적 특성이 된다.

종족성에 대한 이러한 개념 정의에 따르면 종족 정체성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고 자신이 원주민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종족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신을 조직화하고, 사회운동이나 정치세력화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을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마지막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라틴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종족 정체성 회복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 II. 인구비중을 통해 본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의 존재

### II.1. 1990년대 이후 원주민 인구비중은 미약하게나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은 종족 분류를 위해 자기 정체성 기준을 새롭게 추가했지만 과거와 같이 언어에 의한 분류도 여전히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주민 인구의 변화추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선 과거의 통계를 알 수 있는 언어 기준에 의한 수치를 비교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언어 기준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의 원주민 인구비중은 1990년대 이전까지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이후 미약하게나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 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볼리비아는 오히려 최근 까지도 원주민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볼리비아의 원주민 인구는 절대적 수치로 보면 1950년 170만에서 2001년 390만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인구가 동시에 증가했기 때문에 그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현재 사용 언어에 따른 볼리비아 원주민 인구의 비중은 1976년 64.5%, 1992년 61.4%, 2001년 50%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종족성의 정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볼리비아에서 이러한 원주민 인구비중의 감소는 흥미롭다. 결국 이는 원주민의 정체성 회복과 종족성 정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의 메스티사화는 여전히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물론 뒤에서 보겠지만 자기 정체성 판단에 따른 원주민 인구의 비중은 <표 1>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표 1> 현재 사용 언어에 따른 볼리비아 원주민 인구비중 변화추이

조사년도	1976	1992	2001
원주민 인구비중(%)	64.5	61.4	50

자료: INE Bolivia

에콰도르의 원주민 인구비중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0년 이후 1990년까지 감소세를 이어오다, 1990년대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원주민 인구비중이 1950년 10.9%에서 1990년 3.8%로 급감한 이유는, 에콰도르 전체 인구가 같은 시기 2,855,012명에서 9,285,689명으로 거의 3배 이상 증가한 데 비해 원주민 인구는 1950년 347,745명에서 1990년 362,500명으로 단지 4.2%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 인구는 1990년대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1년 자기 정체성에 따른 인구조사에 의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늘어났다. 과거와 같이 언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4.3%로 그 증가세는 같다. 2001년 인구조사에서 자기 정체성을 원주민이라고 말한 830,418명 중 실제 원주민어를 말하는 사람의 수는 이들 중 63.1%인 524,136명이다. 따라서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가 된다(INEC 2001, 21). 이러한 증가는 1990년대 이후 원주민 언어교육 등의 영향으로 1990년에서 2001년 사이 원주민어 사용 인구의 증가율이 자그마치 44.6%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1950년에서 1990년 사이의 증가율 4.2%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이다.

<표 2> 사용 언어에 따른 에콰도르 원주민 인구의 변화추이

조사년도	1950	1990	2001
원주민 인구비중(%)	10.9	3.8	4.3

자료: INEC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최근 인구의 종족적 분류를 위해 자기 판단 방식을 택하거나, 아니면 자기 판단과 더불어 현재 사용 언어, 태생어 등 복수의 분류 결과를 제시하는 것에 비해, 페루는 여전히 단지 태생어(*lengua materna*)에 의한 종족 분류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 그에 따라 페루통계정보협회(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e Informática, 이하 INEI)가 2007년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5세 이상

인구 중 어린 시절에 배운 언어(태생어)가 원주민어인 사람”의 수는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3,913,314명으로 페루 전체 인구 24,700,541명 중 1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NEI 2007).

물론 조사기관에 따라 페루 원주민 인구는 많게는 전체의 47%, 혹은 38-39%, 혹은 3분의 1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페루의 원주민 인구는 조사방법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남을 일단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태생어에 따른 분류에 있어서도 가장의 태생어가 원주민어인가, 자신의 태생어가 원주민어인가에 따라서 또 뚜렷한 차이가 난다. 2000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의 태생어가 원주민어인 경우는 23.8%인데 비해, 자신의 태생어가 원주민어인 경우는 15.3%로 거의 9% 정도의 차이가 난다. 페루 원주민 인구의 상당수가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드러나는 것만 볼 때, 원주민 인구비중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의미 있는 차이는 메스티소화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Hall and Patrinos 2006, 220).

페루 원주민의 이러한 메스티소화로 인해 태생어에 따른 페루 원주민 인구의 비중은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1961년 36%에서 1972년 28%, 1994년 17.6%로 그리고 2000년에는 15.3%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페루에서도 원주민운동과 원주민어 교육의 활성화가 추진됨에 따라 최근 2007년 인구조사에서는 원주민 비중이 15.9%로 미약하나마 다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 태생어에 따른 페루 원주민 인구비중의 변화추이

조사년도	1961	1972	1994	1997	2000	2007
원주민 인구비중(%)	36	28	17.6	15.8	15.3	15.9

자료: Hall and Patrinos 2006, 220-221; INEI 2007

과테말라의 원주민은 2002년 인구조사통계에 따르면 4,610,440명으로 전체인구 11,237,196명 중 41%를 차지한다(Instituto Nacional Estadística: INE 2002). 과테말라의 정부공식통계는 자기 정체성 기준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중 태생어가 원주민인 경우는 78%라고 밝

히고 있으므로 언어 기준에 의한 2002년 과테말라의 원주민 인구비중은 필자의 계산에 의하면 약 32%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어쨌든 과테말라의 원주민 인구비중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세기 말 이후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과테말라의 원주민 인구비중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들어 미약하나마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1778년 과테말라의 원주민 인구비중은 90%를 넘었다. 그러나 독립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거쳐 1989년에는 40% 이하인 37.12%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원주민 인구의 비중은 다시 조금씩 늘어나 1994년 인구조사에서는 42.80%까지 올랐다. 2002년에는 다시 조금 감소했으나 1989년보다는 높은 41%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 과테말라 원주민 인구수와 비중의 변화(1778-2002)

년도	원주민 수(명)	원주민 비중(%)
1778	387,951	90.04
1880	844,744	68.98
1893	882,733	64.68
1921	1,299,927	64.84
1950	1,491,725	53.45
1964	1,808,942	42.19
1973	2,260,024	43.80
1981	2,536,523	41.90
1989	3,215,848	37.12
1994	3,476,684	42.80
2002	4,610,440	41.00

자료: Adams 1994, 156; CEPAL 2006, 97; INE Guatemala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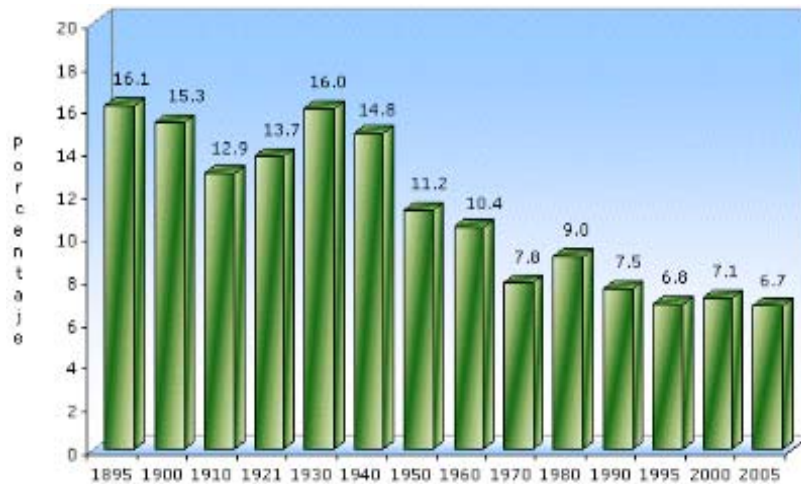
인구의 절대적 수치만을 놓고 보면 멕시코의 원주민 인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사용언어에 따른 멕시코 원주민 인구의 비중은 7.1%(2000년)로서 볼리비아(50%, 2001), 과테말라(41% 언어 기준으로는 32%, 2002), 페루(15.3%, 2000)보다도 낮다. 1519년



약 1,100만으로 평가되던 멕시코의 원주민 인구는 스페인의 정복과 식민지화로 인해 급격히 감소했다. 정복과 전염병 그리고 고된 강제 노동으로 인해 멕시코의 원주민 인구는 1650년에 이미 120만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세기 들어서도 멕시코 원주민 인구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5세 이상 사용 언어 기준으로 평가한 원주민 인구의 비중은 <그림 1>에서 보듯이 1930년 16.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5년 6.8%까지 떨어졌다가, 2000년에는 라틴아메리카 다른 국가들의 전반적인 추세와 같이 약간 상승하면서 7.1%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5년에는 다시 6.7%로 감소한다.

자료: INEGI



<그림 1> 멕시코 원주민 인구 변화추이(1895-2005)

이상 언어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의 원주민 인구비중은 1990년대까지 지속적 하락세를 보였다. 원주민 인구비중 하락의 주요한 요인으로는 원주민들의 메스티소 문화에의 동화, 원주민 인구와 메스티소 혹은 백인 인구 간의 출산율의 차이, 외국인의 이주와 같은 요인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베르게(Berghe

1968, 516)의 분석에 따르면, 과테말라의 경우 에콰도르와는 달리 원주민과 라디노의 출산율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최소한 과테말라에서 출산율의 차이가 원주민 인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원주민 인구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주요한 요인으로 우리는 원주민들이 메스티소 문화에 점진적으로 동화되어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베르게(Berghe 1968, 520)는 과테말라에서 이러한 원주민들의 메스티소 문화에의 동화가 크게 다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그것은 첫째, 원주민이 고향을 떠나 메스티소가 지배하는 도시로 이주한 경우, 둘째, 원주민이 어릴 때부터 라디노 가정의 가정부 등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 셋째, 원주민이 종족간의 결혼이나 혹은 혼외 관계로 라디노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그의 분석은 물론 과테말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스페인어 교육의 확대도 이러한 문화적 동화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표 5>는 멕시코에서 스페인어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5세 이상 원주민 언어를 말하는 인구 중 스페인어를 동시에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변화추이를 보면 1960년 원주민 중 스페인어와 원주민 언어를 동시에 말하는 사람의 비율은 63.5%에 불과했다. 즉 원주민들 중 36.5%는 원주민어만 말할 뿐 스페인어를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5년에는 원주민들 중 87.7%가 스페인어를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스페인어를 모르고 단지 자신의 종족어만을 할 수 있는 원주민의 비중이 12.3%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통계는 멕시코 원주민들 중 젊은이들은 이제 거의 다 스페인어를 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페인어의 확대는 특히 언어만으로 규정된 원주민 인구비중의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표 5> 멕시코 원주민 인구 중 스페인어를 동시에 말하는 사람의 비중(1950-2005)

조사년도	1950	1960	1970	1990	2000	2005
비중(%)	67.5	63.5	72.4	83.5	83.1	87.7

자료: INEGI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원주민 정체성 운동의 확산과 학교에서 원주민어 교육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언어를 기준으로 한 원주민 인구의 비중도 볼리비아를 제외하고는 미약하나마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민 인구의 존재는 언어 기준에 따른 것보다 자기 판단에 의한 비중을 살펴보면 보다 더 중요하게 다가온다.

### II.2. 자기 판단 기준에 따른 원주민 인구의 비중

라틴아메리카에서 종족 분류는 1980년까지는 주로 피부색이나 언어가 주요한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의식, 즉 자기 판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아래 <표 6>에서 보듯이 1980년대까지 라틴아메리카의 어떤 나라도 자기 판단을 종족 분류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 중 아르헨티나, 브라질, 쿠바, 파라과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국가들은 자기 판단을 종족분류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표 6> 라틴아메리카 인구조사에서 사용된 지표들의 시기적 변화

	국가	인구조사 년도		
		1980	1990	2000
인구조사 시 단수 질문을 하는 국가	아르헨티나			원주민 가정
	브라질	피부색/인종	피부색/인종	피부색/인종
	칠레		자기 판단	자기 판단
	코스타리카			자기 판단
	쿠바	피부색/인종		피부색/인종
	온두라스		현재 사용 언어	자기 판단

	니카라과		태생어	
	파나마		자기 판단	자기 판단
	페루	현재 사용 언어	태생어	태생어
인구조사 시 복수 질문을 하는 국가	볼리비아	현재 사용 언어	현재 사용 언어	현재 사용 언어 자기 판단 태생어
	콜롬비아		자기 판단 현재 사용 언어 거주지	
	에콰도르		가족 언어	태생어 자기 판단 피부색/인종
	과테말라	조사자 판단 신발 가족 언어 복장	자기 판단 태생어 현재 사용 언어 복장	자기 판단 태생어 현재 사용 언어
	멕시코		현재 사용 언어	현재 사용 언어 자기 판단
	파라과이	가족 언어 현재 사용 언어	가족 언어	가족 언어 현재 사용 언어 원주민 가정
	베네수엘라			자기 판단 현재 사용 언어

자료: CEPAL 2006, p. 256-257; INEI 2007

1990년대 이후 널리 적용되기 시작한 자기 판단 기준에 의한 라틴 아메리카 주요 국가의 원주민 인구비중은 언어 기준에 의한 것보다 조사 대상국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록 도시로 이주한 원주민들과 그의 자손의 상당수가 언어적으로는 스페인어를 습득하고 원주민어를 잃어버림으로써 메스티소 문화에 동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여전히 원주민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앞서 살펴본 대로 언어 기준에 따르면 볼리비아의 원주민 인구비중은 1976년 64.5%이던 것이 2001년 50.0%로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표 7>에서 보듯이 2001년 인구 조사부터 실시된 자기 정체성 기준에 따르면 2001년 볼리비아 인구(15세 이상 인구) 중 62%가 자신을 원주민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언어 기준에 따른 비중보다 자기 정체성 기준에 따른 비중이 12%나 높게 나타난다.

2001년 언어 기준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원주민 인구비중은 4.3%이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 기준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인종은 메스티소 77.4%, 백인 10.5%, 원주민 6.8%, 몰라토 2.7%, 흑인 2.2%, 그 외 0.3%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INEC 2001, 27). 물론 원주민 인구비중 6.8%는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의 잘 알려진 정치적 영향력에 비하면 여전히 생각보다 높지 않은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에콰도르 원주민의 정체성 회복이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보다 오히려 에콰도르의 원주민들은 비록 원주민어를 말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원주민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자기 정체성 평가 기준에 따른 2001년 에콰도르 원주민 인구 수 830,418명을 1990년 언어 기준에 따른 원주민 인구수 363,500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자그마치 129.1%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는 아직도 원주민에 대한 전통적 평가-“열등하고, 거칠고, 한이 많고, 이기적이고, 잔인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신뢰할 수 없는, 따라서 문명에 통합되지 않으면 소멸되고 말 인종”-가 강한 에콰도르(Colloredo-Mansfeld 1998)에서는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0년대 이래 본격적으로 전개된 원주민 정체성 회복운동의 결과이다. 1990년대 이후 에콰도르 원주민들은 정치적 장에서나 언어사용에 있어 자신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사회적 갈등과 협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원주민 인구비중으로도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88년 문화 간 이중 언어 교육 담당기관(Dirección Nacional de Educación Intercultural Bilingüe, DINEIB)의 설립과 원주민어의 공식적 사용은 원주민어 사용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 원

주민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자신의 정체성을 원주민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의 수도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심지어 조사기관 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에콰도르 원주민의 비중은 43%(UN 2004년 기준, INEC 2001 자료 참조)까지로 평가되기도 한다.

<표 7> 언어 기준과 자기 정체성 기준에 따른 원주민 인구비중 비교

국가 (인구조사 실시년도)	언어 기준(A) (현재사용언어 혹은 태생어)	자기정체성 기준 (B)	(B)-(A)
볼리비아(2001)	50.0%	62.0%	12.0%
에콰도르(2001)	4.3%	6.8%	2.5%
페루(2001)a	25.0%	43.0%	18.0%
과테말라(2002)	32.0%b	41.0%	9.0%
멕시코(2000)	7.1%	자료 없음	-

a: 정부 공식 자료가 아닌 세계은행(Hall and Patrinos 2006) 자체 평가에 따름 / b: 자체 계산 수치  
자료: INE Bolivia; INEC; INEI; INE Guatemala; INEGI

페루는 지금까지 인구조사 시 종족 분류를 위해 자기 정체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얼마 되지 않는 나라 중 하나이다. 따라서 관련하여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홀과 파트리노스(Hall and Patrinos 2006, 41-42)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페루의 원주민 가정 중 흔히 사용하는 언어가 원주민어인 경우는 25%인데 비해, 가정의 태생어가 원주민어인 경우는 34%, 스스로를 원주민으로 규정한 가정은 43%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 정체성 기준에 따른 원주민 인구의 비중이 언어에 따른 비중보다 거의 2배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페루의 원주민들이 인디헤니스모 정책에 따른 스페인어 교육확대와 도시화 등으로 언어적으로는 메스티소화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여전히 원주민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역시 적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페루에서 원주민 정체성은 매우 느슨한 형태로 규정된다. 따라서 페루에서는 자신을 원주민

이라고 규정한 사람들일지라도 종족적 권리를 요구하는 종족 정체성의 회복까지 나아가지는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1981년까지 과테말라 인구조사에서 원주민 정체성은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러나 1989년부터 과테말라의 원주민 인구를 측정하는 기준은 자기 판단이다. 1989년 이후 과테말라 통계청(INE)은 “당신은 원주민입니까?”(¿Es indígena?)라는 매우 단순한 질문을 통해 정체성을 파악하고 있다. 과테말라에서 이러한 자기 판단 기준은 아무래도 정치사회적 상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90년대 원주민 인구비중의 증가도 국제적 환경과 국내의 민주화와 평화협상이라는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자기 판단 기준으로서 “당신은 원주민입니까?”라는 다소 직설적이고 단순한 질문은 여전히 원주민 인구의 과소평가를 가져오고 있다(Hall and Patrinos 2006, 39).<sup>2)</sup>

어쨌든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자기 판단 기준에 따른 원주민 인구의 비중은 언어 기준에 따른 것보다 높게 나타난다. 과테말라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2002년 스스로를 원주민이라고 규정한 원주민 인구의 비중이 41%인데 비해 언어 기준에 따른 비중은 약 32%이다. 이는 과테말라의 원주민 중 약 10% 정도가 언어적으로 이미 메스티소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주민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sup>3)</sup>

결론적으로 사용 언어 기준으로 볼 때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인

2)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정부는 대 게릴라정책의 일환으로 원주민이 주로 거주하는 우에우에테낭고, 키체, 치말테낭고, 알타베라파스 주에서 원주민 마을들을 소각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원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공격적 태도가 1996년 게릴라와 정부군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따라서 당시 북서부 고지대에서 “원주민”으로 규정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1989년 이후 인구조사에 자기 판단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러한 정치사회적 조건들이 얼마나 정체성의 자기규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로 인해 자기 판단 기준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의 원주민 인구가 전반적으로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음은 사실이다(Adams 1994, 183).

3) 자기 판단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주요 종족인 키체는 11.3%, 켉치는 7.6%, 캅치켈은 7.4%, 맘은 5.5%를 각각 차지하지만, 태생어에 따르면 이들의 비중은 각각 8.7%, 7.0%, 4.3%, 4.6%로 역시 줄어든다(INE Guatemala 2002).

구비중은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1990년대 이후로는 볼리비아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 미약하나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정체성의 자기 판단 기준으로 살펴보면 원주민어를 상실함으로써 즉 메스티소화됨으로써 언어 기준으로 원주민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원주민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중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조사 대상 국가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물론 원주민 인구의 존재가 원주민 정체성 회복과 그에 따른 종족성 정치의 발전에 직접적 관련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언어 기준이든 자기 판단 기준이든 원주민으로 나타난 사람들이 분명 원주민 종족성 정치의 잠재력임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원주민들이 자신의 종족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 III.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은 종족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가?

#### III.1.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문화적 혼종성이 강할수록 더 크게 부각되는 종족 정체성

메스티사헤 담론들은 피부색에 따른 인종으로 보나, 문화적 차원의 종족으로 보나 오랜 세월이 걸쳐 진행된 혼혈과 혼종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에는 더 이상 순수한 원주민과 순수한 원주민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화적 차별과 경제사회적 차별이라는 현실에 직면한 원주민과 흑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찾는 노력을 통해 이러한 주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흑인보다는 주로 원주민들에 의해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원주민들의 종족 정체성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는 나라는 바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이다.

볼리비아 원주민들의 정체성 회복과 관련하여 문화적 혼종성에 대



해 카네사(Canessa 2000, 117-118)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문화적 혼종성의 아이디어는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문화적 교류 없이 순수한 문화를 간직한 예는 많지 않다. 따라서 모든 문화는 당연히 혼종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으로 중요한 것은 문화의 혼종성 그 자체가 아니라 원주민들이 메스티사헤의 규범적 틀에 반대해서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하느냐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문화적 혼종성 그 자체보다는 주관적인 종족 정체성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카네사(Canessa 2000, 119-120)의 분석에 따르면 볼리비아의 라파스 시와 인근 지역의 아이마라어를 말하는 이주민들은<sup>4)</sup> 도시 문화와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볼리비아 “인디언”들 중에서도 가장 문화적 혼종성이 강한 그룹들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자신의 문화적 혼종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들이 문화적 혼종성을 거부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상대적으로 덜 섞였고 또 그로 인해 문화적으로 순수함을 보다 더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문화적 혼종을 더 기꺼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체성 회복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문화적 혼종의 형태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라는 것을 따지기보다는, 그러한 혼종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를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중 원주민의 정치적 참여가 가장 활발한 볼리비아에서 “원주민 혹은 인디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혼종이 적은 지역의 사람들이기 보다는, 오히려 문화적 혼종이 더 많이 진행된 지역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4) 카네사(Canessa 2000, 118)는 원주민(indigenous)이라는 용어가 원래 그 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의미하므로, 실제 그 지역 출신이 아닌 수백만의 사람들을 동일한 정체성에 포함해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신 그는 인종적 의미가 강한 “인디언”(indian)이라는 표현을 오히려 더 선호한다. 실제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 인근의 아이마라인들 중 많은 수가 원래 이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아닌 시골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다시 카네사의 말을 인용하면 “여기 ‘전통적’인 기반 위에서 조직되고, 응집력 있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북부 고지대 인디언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그룹들은 종족성 정체성을 정의하고,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관심을 훨씬 덜 기울인다. 명백히 모순적인 사실은 바로 이들 전통주의자들이 혼종적인 종교적 실천과 문화 통합의 이데올로기에 보다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점이다.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이다. 반면 종교적 신크레티즘에 반대하고, 문화적 인종적 메스티사헤를 거부하며, 정체성의 본질적 범주에 충실하고자 하는 이들은 바로 근대화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다.”(Canessa 2000, 120).

이러한 주장은 왜 볼리비아 원주민 운동 중 가장 뿌리 깊고, 가장 강력한 원주민 정체성을 가진 세력이 바로 라파스 시와 인근 엘 알토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아이마라인들인지를 잘 설명해준다. 그리고 메스티사헤에 가장 많이 노출된 이들 아이마라인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전개된 이러한 정체성 회복 운동은 볼리비아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다른 원주민들에게도 확산되었고, 결국에는 원주민 정체성을 내세우는 대통령의 탄생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에콰도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베크와 미제스키(Beck and Mijeski 2000)는 에콰도르에서도 메스티소 문화와 보다 많은 접촉을 통해 문화적 변용이 발생한 곳에서 원주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에콰도르의 볼리바르주 주도인 과란다(Guaranda)에 있는 볼리바르 주립대학교(Universidad Estatal de Bolívar)의 안데스문화 교육학교(Escuela de Educación y Cultura Andina) 학생들을 대상으로<sup>5)</sup> 에콰도르의 주류문화, 즉 메스티사헤 문화에 대한 의식을 측정하였다. 조사는 이 학교 3, 4학년 학생 11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5) 안데스문화 교육학교는 원주민 공동체 지역에 위치한 초·중등학교에서 이중 언어교육을 위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로서 학생의 대다수는 원주민이고 3분의 1정도가 메스티소이다.

결과는 조사 대상자 중 자신의 정체성을 원주민이라고 답한 사람이 76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76명 중 메스티사헤 과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25%에 불과했다. 이 수치를 다시 다양한 메스티사헤 노출 변수들과 함께 살펴보면, 어머니의 공식교육, 즉 메스티사헤 교육을 받은 수준이 높거나, 스페인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고등학교를 마친 나이가 젊을수록(인격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에 공식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판가름한다), 자녀수가 많을수록(가족에 대한 책임감의 정도를 나타냄), 여성일수록 보다 더 메스티사헤를 거부하는 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모친의 교육수준과 고등학교 졸업시기라는 두 변수와 메스티사헤 거부의 정도는 매우 큰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Beck and Mijeski 2000, 125-133).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스페인어 등 공식교육을 받은 정도가 높을수록 메스티사헤를 지지하는 경향이 더 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메스티사헤의 정도가 더 클수록 그에 대한 반대의 정도도 더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렇게 답한 학생들이 솔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메스티사헤의 정도가 클수록 자신의 문화의 변용에 대한 위협을 보다 더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원주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에콰도르에서 왜 그렇게 강력한 원주민 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은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의 사례는 원주민 정체성의 문제가 라틴아메리카 문화의 혼종성을 강조하는 메스티사헤 담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문화가 얼마나 혼종되었나 하는 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러한 메스티사헤를 경험하고 있는 원주민들이 얼마나 자신의 종족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 III.2. 페루: “메스티소적 원주민”의 정체성

안데스의 이웃 국가인 에콰도르, 볼리비아와 달리 페루 원주민들의 정체성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페루에서는 원주민의 정치적 활동도 미약하다. 페루 원주민의 복잡한 정체성과 정치 활동의 미약함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페루에서는 계급 정체성과 계급 담론이 앞의 두 국가보다 더 강력했기 때문에 종족 정체성과 종족성 정치의 발전이 뒤쳐졌다는 주장이다. 즉 벨라스코 정부와 뒤를 이어 안데스 지역을 장악했던 센데로 루미노소와 같은 좌파 정치 운동의 계급적 성격이 페루 원주민들의 종족 정체성 강화를 억제했다는 것이다(Gelles 2002).

이러한 주장은 페루 원주민들의 종족 정체성과 종족 운동의 미약함을 부분적으로 설명해주지만 충분한 답은 아니다. 페루뿐만 아니라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도 과거 원주민은 계급적 정체성에 따라 “농민”으로 분류되었다. 물론 페루에서 그러한 시도가 더 강력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그러한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게다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좌파 정당이나 좌파 운동의 영향력이 쇠퇴했을 때에도 페루의 원주민들은 여전히 종족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미온적이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최소한 페루에서 좌파의 영향력과 원주민 정체성의 관련성은 그다지 큰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한편 권위주의도 원주민 정체성 형성과 종족 정치의 발전을 막은 한 요인으로 설명된다.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에서는 민주화와 함께 원주민 운동이 활성화 되었던 것에 비해, 페루에서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후지모리의 민주적 권위주의 통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정치 운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Van Cott 2005, 140-141).

이는 중요한 지적이기는 하지만 역시 충분한 답은 아니다. 왜냐하면 콜롬비아나 과테말라에서는 권위주의 체제가 보다 더 강력했지만 원주민 운동이 출현했으며, 페루도 비록 원주민 운동의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성격을 가진 정치 운동의 조직화는 이 기간

에도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어려움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에서는 가장 고통 받는 원주민들의 조직화와 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동안, 페루에서는 센데로 루미노소나 투팍 아마루와 같은 계급적 정치 운동에 의해 주도되었다. 즉 페루에서는 권위주의로 인해 저항이 없었다기보다는, 저항의 성격이 종족적이기 보다 여전히 계급적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기회 구조에 기반을 둔 이와 같은 주장은 왜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보다 페루에서 종족 정체성이 계급 정체성보다 미약한지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페루에서 원주민 종족 정체성과 종족 운동이 미약한 이유는 결국 원주민이 된다는 것의 의미 차이가 다르다는 점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즉 원주민이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페루와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원주민들의 정체성 형성도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종족 정체성이 오랜 역사를 통한 문화적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페루 원주민의 정체성 형성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는 국가의 통합 전략이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는 20세기 중반 이후 민족국가 형성을 위해 메스티사해를 강조했었다. 그러한 정책을 통해 이들 국가의 원주민들은 메스티소가 되어 지배적인 히스패닉 문화에 동화되어 갔다. 따라서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의 원주민 사회 운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메스티사해를 거부해야 했다. 원주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주민 지도자들은 종족적 상징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나 에콰도르의 원주민 지도자들이 코카 잎을 숭배하고, 잉카의 무지개 깃발을 상징으로 내세우며, 원주민 투쟁 신화와 잉카의 제식들을 따라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에콰도르나 볼리비아에서와는 달리 페루에서 원주민들은 메스티사해 정책에 대해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원주민

정체성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페루의 국가 통합 정책이 메스티사헤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페루는 국가 통합을 위해 메스티사헤를 강조하기보다는 대신 인디헤니즘을 통해 원주민적인 것을 국가 정체성에 적극적으로 포용하고자 했다. 특히 쿠스코를 중심으로 한 안데스의 엘리트들은 잉카 문명을 서구 유럽 문명과 동일한 수준에 두고, 이들을 모두 포용하는 국가 정체성 확립을 추구했다. 20세기 동안 볼리비아와 에콰도르가 국가 정체성 형성을 위해 원주민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했다면, 페루는 그를 위해 원주민 문명을 적극 수용하고자 했다. 한 예로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는 메스티사헤를 위해 원주민 언어를 제거하고자 했다면, 페루는 원주민 언어 교육을 적극 장려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페루의 원주민들은 원주민어의 교육이 오히려 자신들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막는 처사라 여겨 그의 확산에 반대했다. 심지어 1990년대에도 그들은 리마의 정부 엘리트들이나 외국 NGO들에 의해 추진된 케추아어 교육의 확산과 원주민 정체성 형성 시도에 대해, 그것이 인종주의 사회에서 자신들을 뒤쳐진 “인디언”으로 남아있게 하는 처방이라고 비난했다(García 2005, 167). 페루의 원주민들은 원주민 문화를 실천하는 것이 경제사회적 진전을 막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에콰도르나 볼리비아의 원주민들은 원주민 운동에 가입하는 것이 삶의 기회를 증대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중 언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페루의 원주민들은 스페인어나아가 영어를 배우는 것이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케추아어를 가르치는 것에 반대한다(Glidden 2007). 관광산업의 발달로 인해 페루에서 스페인어나 영어교육이 가져다주는 실질적 기회가 많은 점이 원주민들의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에콰도르와 볼리비아와는 달리 페루의 원주민들은 메스티사헤를 거부하지 않고 대신 그를 원주민 문화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관련하여 마리솔 데 라 카데나(De la Cadena 2000, 325)는 “페

루 원주민들은 ‘인디언성’을 빈곤과 후진성이라는 부정적 함의를 가진 것으로 보는 반면 ‘메스티사헤’는 근대적이고 경제사회적으로 진보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원주민의 정체성이 ‘인디언성’과 동일시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페루의 원주민들이 “인디언성”을 거부하고 “메스티사헤”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이 원주민이기를 거부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원주민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사회적 “진보”를 의미하는 메스티사헤를 통해 원주민 정체성을 새로이 확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도시에 살고, 스페인어 교육을 받고, 컴퓨터나 핸드폰과 같은 현대적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경제사회적 진보라는 의미에서 메스티소의 면모를 가지더라도, 원주민 문화의 관습과 지식들을 간직한다면 그는 여전히 원주민인 것이다. 따라서 페루에서는 원주민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기보다는, “메스티소적 원주민”의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런 사실은 원주민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페루에서 원주민 종족 정체성 회복, 즉 원주민 운동이나 정체 세력화가 미약한가를 잘 설명해 준다.

### III.3. 과테말라: 마야주의 그룹과 공동체 원주민 간의 소통 부재

과테말라에서 마야원주민의 정체성 회복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다. 주로 도시로 이주한 원주민 출신 지식인이 외국의 지원을 받아 문화운동 차원에서 소위 마야운동(Maya Movement)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과테말라 원주민들의 마야 정체성 회복을 촉구하면서 마야인들의 정치적 대표성이나 토지 소유권 인정과 같은 요구들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제 국제적으로 마야 원주민 운동의 상징으로 주목받은 사람은 199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리고베르타 멘추(Rigoberta Menchú)이다. 그녀가 구술하고 엘리자베스 부르고스(Burgos 1992)가 정리한 『내 이름은 리고베르타 멘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 나의 의식이 탄생했다』(Me llamo Rigoberta Menchú y así me nació la conciencia)는 그녀

의 투쟁이 지나는 원주민적 정체성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멘추는 그들의 운동이 토지문제로 인해 발생했지만, 그 근원에는 원주민으로서의 사회적 차별구조가 놓여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내가 기억하기로 우리가 문제의 근원이 토지와 착취구조에 있다고 말하고 있었을 때, 또 다른 조건외 하나로 나에게 떠오른 생각은 우리가 원주민이라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착취당하는 것을 넘어 차별당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Burgos 1992, 192-193).

멘추의 증언은 과테말라의 소외된 원주민들의 문제가 단순히 토지와 같은 경제사회적 성격을 넘어 종족적 차별과 같은 현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원주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sup>6)</sup> 비록 멘추에게는 원주민 정체성 회복이 중심과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 시기에 과테말라에서도 원주민들의 투쟁은 단순한 농민운동의 수준을 넘어 원주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종족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민주화 이후 과테말라 지배층 라디노(ladino)<sup>7)</sup>들의 대응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권위적 통치방식이 아니라 정체성 정치를 위한 헤게모니 투쟁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인종적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라디노들은 반인종주의, 메스티사헤, 혼종성을 주장하면서 대응하기 시작했다(Morales 2009).

6) 멘추가 비록 자서전에서 원주민 종족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실제 그녀는 원주민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과테말라의 빈민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녀는 순수하게 종족적인 이슈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에 따라 멘추는 계급 기반 조직인 농민연합위원회(Comité de Unidad Campesina, 이하 CUC)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좌파 계열 조직인 과테말라전국혁명연합(Unidad Revolucionaria Nacional Guatemalteca: URNG)을 지지하기도 했다. 비록 그녀가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CUC가 키체족이 중심이 되어 발생했고, 또 그의 지지기반도 대부분 마야 원주민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CUC는 자신의 문제를 종족적 성격으로 보기보다는 계급적 성격으로 간주하는 좌파 계급 조직이다. 멘추가 199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함으로써 국제적으로는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의 상징으로 부각되었지만, 국내적으로 그녀는 마야 원주민 정체성 회복의 중심인물이 아니며, 원주민들의 정치적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7) 라디노는 중미에서 메스티소를 대신해 혼혈인을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특히 과테말라에서 라디노는 원주민이 아닌 다른 모든 종족(백인까지 포함)을 나타내는 보다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게 있어 과테말라 문화의 혼종성은 현실이다. 그리고 종족성의 분리를 강조하는 것은 인종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또 다른 인종주의이며 따라서 탄생한지 얼마 되지 않는 과테말라의 허약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다. 한편 메스티사헤는 과거의 인종주의를 극복하고, 인종간의 평등을 위해 마야인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특권적, 대립적 의미가 강한 “라디노”에서 “메스티소”로 전환하고자 한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메스티사헤는 “인디언”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라디노”보다 헤게모니 구축에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라디니즘이나 인디언니즘 모두 배타적이고 비관용적이기 때문에 메스티사헤가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헤일(Hale 1999, 307)은 그러한 메스티사헤, 문화적 관용, 반인종주의에도 불구하고 과테말라 사회에 여전히 인종차별 현상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원주민 출신 변호사나 의사에 대한 불신, 피부색이 짙거나 지위가 낮은 라디노를 보다 높은 지위의 라디노가 “교정된 인디언”(redressed indians)이라고 부른다는 가 하는 사례는 과테말라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 의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차별구조가 지속되는 한 메스티사헤 주장은 마야 원주민들의 정체성 회복 요구를 왜곡하고, 마야의 문화적 소멸만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에 따라 최진숙(Choi 2007; 2009)은 단일문화를 주장하는 라디노 좌파들의 “혼혈주의”에 대응해 원주민들이 마야와 라디노가 사회적으로 분명 다른 집단임을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다. 그녀는 수차례 현지 연구를 통해 오늘날 마야인들이 느끼는 정체성은 혼종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화의 본질적 순수함도 아님을 주장한다. 그들은 현재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오히려 “애매모호함”과 “덜레마”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마야의 정체성도 복장과 종교, 언어와 같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느끼는 마음에 달려있음을 역시 강조하고 있다. 즉 라디노라도 키체어를 배우고 마야의 종교와 문화를 실천하려고 한다

면 그도 역시 마야인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테말라 문화의 혼종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마야 원주민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과테말라에서 원주민 정체성 회복을 강력히 주장하는 세력은 앞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소위 마야운동을 주도하는 “마야주의 그룹”들이다. 마야주의 그룹의 리더들은 대부분 농촌의 마야 공동체 출신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일찍부터 교육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또는 농촌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수도인 과테말라시로 이주해 거기서 학자로서 사업가로서 혹은 문화 활동가로서 일정한 성공을 거둔 전문가들이다. 마야주의 그룹의 리더들은 대부분 대학 학력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히 도시적이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마야 지식인들이나 중산층 마야인들은 과거와 같이 라디노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야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계급에 따라 종족성이 결정되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주로 도시와 농촌의 중산층들로 구성된 마야주의자의 다수는 그들의 라디노 동료들과는 복잡한 관계를 가진다. 마야주의자들은 계급과 종족 간의 연합을 위한 매개 역할을 맡고자 한다. 즉 마야주의자들은 같은 계급으로서 라디노 중산층들과 연합하기보다는 마야어를 사용하는 고지대의 마야 중산층 혹은 마야 농민들과 계급 간의 동맹을 시도한다. 결국 마야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마야의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계급 간의 동맹이다(Warren 1998, 202).

마야주의 그룹은 과테말라에서 마야인들이 수적 비중에 어울리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종족적 정체성을 자각하고 문화적으로 하나로 단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 활동이 바로 마야인들의 이런 종족 의식을 깨우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마야 상형문자의 가치를 깨우치고, 그를 조직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마야의 수 체계와 역법을 연구하고

또 그를 실제 책 등에서 활용하고, 스스로 마야 이름으로 개명하고, 자식의 이름을 마야 영웅의 이름으로 짓고, 마야의 의복을 입는 등 다양한 문화적 실천을 통해 마야 정체성 의식을 고취하고, 또 그를 대중에게 전파함으로써 마야 대중의 종족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다.

그러나 마야인들의 이러한 계급 간의 연합은 아직까지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도시의 마야 지식인들은 비록 마야인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마야 대중과는 다른 사회적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마야주의 그룹의 리더들과 농촌지역의 마야 대중들 사이에는 여전히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Fischer 2004, 98).

공동체의 입장에서 동부 과테말라 초르티스(Chortis)족의 사례를 분석한 메츠(Metz 1998, 342-344)의 연구는 마야주의자들과 원주민 공동체 간의 이러한 소통의 부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공동체의 원주민들은 원주민의 전통과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야 공동체들의 다양한 성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반화되고 이상화된 “범마야문화”(pan-maya culture)를 주장하는 마야주의자들을 이들 공동체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지역의 공동체들은 각각의 원주민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원주민 공동체들이 외부 지도자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마야주의자와 원주민 공동체 간의 소통 부재의 또 다른 원인이다. 그러나 메츠도 라디노와의 접촉이 많은 지역, 따라서 자신의 공동체의 정체성과 자치가 위협을 받는 지역의 원주민들은 보다 더 마야주의 운동에 호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기도 한다. 한편 마야주의자들은 그들과 원주민 공동체 간의 거리감과 소통 부재의 주요한 요인이 마야 대중의 높은 문맹률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벽의 극복 없이 마야주의의 정체성 회복 운동이 대중적 뿌리를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한 주장에 따르면 마야인들은 크게 세 범주로 나뉘게 되는데, 첫째는 종족적 차별과 사회적 소외라는 지속적 삶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마야인의 의식을 가진 대부분 문맹인 마야 농민들이고, 둘째는 그의 종족

의식이 계급의식으로 표현되는, 즉 민중 혹은 계급 조직에 소속된 마야 농민과 노동자들이며, 마지막은 진정한 마야 문화와 그의 실천을 통해 범 마야의 통합을 촉구하는 중산층 혹은 하층 마야 지식인 그룹이다(Cojí 1997, 52).

따라서 코호티(Cojí)는 마야주의자의 입장에서 마야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마야인의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야 원주민들 모두가 명백하고 완전한 종족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테말라와 같이 다종족 언어 국가에서 나타나는 소통의 부재와 주장의 다양함이라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Cojí 1997, 53).

그와 함께 마야주의 그룹들이 발전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은 이미 언급한 과테말라 라디노들의 원주민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이다. 과테말라의 중산층 라디노들은 마야인들을 여전히 과거와 같이 비하하는 의미에서 “우리들의 인디오들”(nuestros indios)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편견은 결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과테말라의 라디노들이 마야어에 대한 존중과 그의 공식적 사용을 인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게다가 원주민들에 대한 두려움 또한 라디노들에게 매우 뿌리 깊게 남아 있다. 비록 게릴라들에 의한 내전이 종식되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원주민들이 정체성 회복을 통해 단합하면 현 라디노 지배체제를 흔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라디노들에게는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라디노들은 원주민들이 종족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체제에 위협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은 지금까지 그 어떤 계급적 투쟁보다 더 큰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믿고 있다. 즉 원주민들이 종족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은 인종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과테말라를 “유고슬라비아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Morales 1993, 10). 과테말라의 원주민 정체성 회복은 도시의 마야주의 지식인들과 농촌의 마야 대중 간의 소통의 부재, 그리고 원주민의 정체성 회복이 인종적 갈등을 야기할 것을 두려워하는 라디노들

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과테말라가 높은 원주민 인구비중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원주민들의 정체성 회복이 미진하고, 원주민 사회운동이나 정치세력화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이다.

### III.4. 메스티소 국가 멕시코에서의 원주민 정체성 회복

메스티소의 국가 멕시코에서도 1994년에 발생한 치아파스의 원주민 반란은 인종문제를 국가적 아젠다로 부각시키기에 충분했다. 마르코스의 선언들을 모은 책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의 후기에서 에너 캐리건(Ana Carrigan)은 치아파스 사건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하룻밤 사이에 ‘치아파스에 있는 조그만 네 개 자치주에서 일어난 지역 분쟁’이 세계화와 농업정책, 원주민의 권리, 멕시코의 인종차별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국적인 토론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스티소가 주류를 이루는 현대적인 멕시코가 전통적인 원주민의 멕시코와 대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서...”(마르코스 2002, 727).

멕시코에서 원주민의 정체성 회복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이다. 당시 살리나스 정부는 원주민들을 메스티소로 동질화하려는 인디헤니스모의 시도가 실패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농촌지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지금까지 활용되어 왔던 토지 개혁과 농업발전 정책들을 포기했다. 그리고 살리나스 정부는 공동소유 토지의 민영화 정책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농촌에도 적용했다. 그에 맞서 원주민들은 그들의 공동체에 기반을 둔 저항 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저항은 공동체의 주권 방어를 전면에 내세웠고, 그를 위해 토지의 공동소유와 같은 관습법을 인정하고 실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나아가 원주민 지역의 자치권 요구로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Dietz 2004, 49-50). 그리고 사파티스타의 봉기는 이러한 흐름의 가장 상징적 사건이었다.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 존엄성을 인정받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원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일반적으로 멕시코인들은 모두가 메스티소인 나라에서 원주민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은 의아한 일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멕시코의 메스티소들은 아무리 원주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집하더라도 실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완전한 멕시코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메스티소의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에 맞서 메스티소들의 그와 같은 주장은 결국 “반원주민적 인종주의”에 불과하며, 따라서 멕시코의 인종주의는 정확히 말해 소통의 부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들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인종주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통합정책에 따른 원주민의 제거와 그를 위한 폭력성을 끊임없이 고발해야 하고, 나아가 열등한 존재로서 인식되어 다른 이들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원주민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또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메스티소의 입장에서 소수인 원주민을 제거하거나, 혹은 “구원”하겠다는 의도로 실제로는 그들을 사라지게 할 것이 아니라, 원주민 그들 스스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멕시코 원주민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것이다(Gall 2004, 254).

그와 관련하여 쿠티에레스(Gutiérrez 1998, 294-299)는 멕시코 원주민들이 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흥미롭다. 우선 그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두 개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 및 전문연구원으로 종사하는 원주민 10명을 심층면접 대상으로, 석사과정과 학부에서 각각 10명과 50명의 원주민을 일반설문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의 정체성의 기원과 관련된 질문에서 교수들과 전문가 그룹들은 메스티사해보다는 각 종족 고유의 신화에서 그 답을 찾는 반면,<sup>8)</sup>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메스티사해를 자신의 정체성의

기원으로 인식했다. 즉 공식교육을 받은 원주민 학생들은 자신의 종족 기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메스티사헤 외에 다른 정체성을 선택할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메스티사헤의 영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교수나 전문가 그룹들은 메스티사헤가 원주민문화를 소비주의 아이টে모로는 부상시켰으나, 원주민 그 자체는 거부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여전히 공식 교과서에 언급된 대로 원주민 문화가 메스티소 문화에 합병되었으며, 종족그룹은 과거의 일이고, 인디언은 문맹을 의미하며, 메스티소 문화가 원주민문화보다 우위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 쿤티에레스의 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공식 교육을 받은 멕시코의 일반 원주민 학생들은 대부분 메스티사헤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비해, 지식인 전문가 그룹일수록 메스티사헤가 메스티소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문화의 히스패닉화를 추구하는 차별의 이데올로기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식인들이나 일부 지역의 이러한 메스티사헤 이데올로기 반대와 원주민 정체성 회복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멕시코 사회의 전반적 인식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이다. 주종택(2005, 255-262)은 멕시코의 많은 지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원주민이라고 규정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줄어들고 있으며, 원주민어가 스페인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인식 하에 원주민어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는 원주민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한다. 같은 의미에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위치를 비하해서 말하거나, 주류사회와 비교해서 자신들을 평가할 때 자신들이 원주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주민 운동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원주민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원주민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도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최종적으로 현재 멕시코에서 원주민의 정체성 회복은 개인의 의식에 따라,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

8) 예를 들면 아스텍은 아스틀란 동굴, 믹스텍은 여신의 나무, 사포텍은 구름의 사람들 빈니굴라사(Binnigulása), 마야는 시우(Xiu)라는 신성한 계급 등을 자신의 정체성의 기원으로 보았다.

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어쨌든 멕시코에서도 메스티사헤 이데올로기는 전성기를 지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원주민 정체성 회복이 일반화된 것도 아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지식인 그룹이나, 치아파스와 같이 원주민 운동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메스티사헤 이데올로기가 거부되고, 대신 종족 정체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은 전통적으로 메스티소 국가인 멕시코에 전국적으로 많은 반향을 불러오고 있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움직임이 멕시코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 IV. 결론을 대신하여: 원주민 정체성 회복을 넘어서

원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그들의 요구인 다문화주의를 수용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다문화주의는 같은 시기에 라틴아메리카를 지배한 이데올로기인 신자유주의와 어떤 면에서 잘 어울리는 측면이 있다.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원주민에게 새로운 참여공간을 열어줬고, 따라서 원주민들의 자치적 정치기구 설립에 기여했다. 신자유주의 경제개혁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적인 조합주의를 소멸시킴으로 인해 지방단위에서 원주민들의 자치적 공간 확보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는 신자유주의의 다원주의적 문화프로젝트는 또한 원주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실질적 결과는 원래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소수의 원주민 운동가들은 권력에 접근하는 달콤한 맛을 볼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원주민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었다. 즉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인종적 불평등을 보다 견고한 형태로 재 설립하고 있는 것이다.

헤일(Hale 2004, 18)의 말을 빌리자면 다문화주의는 신자유주의와 결합한 새로운 통치형태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는 명



백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문화주의로 인한 문화권의 확보는 정치경제권의 확보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예를 들어 과테말라의 경우 다문화주의에 따라 문화부장관직은 원주민 몫으로 할당되었지만, 재무장관과 같은 경제부처는 여전히 라디노들의 배타적 영역에 있다. 또한 최근 정부는 멘추를 앞세워 마야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원주민 농민의 토지점거를 폭력적으로 억압하기도 한다. 물론 문화적 저항이 정치적 단합과 후에 일어날 정치적 변화를 위한 진지 구축이라는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원주민이 가장 갈망하는 토지권이 문화권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원주민 정체성 회복이라는 문화운동의 한계는 바로 여기에 있다.

원주민 운동의 리더들은 농촌이라는 전통적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원주민 문화, 원주민 자치 등의 이상적 구호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농촌, 도시 등 다양한 공간에서 존재하는 모든 원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 원주민 운동은 단순한 정체성 회복이라는 문화운동에서 벗어나 에콰도르나 볼리비아에서처럼 신자유주의 투쟁과 과감한 연대를 맺고 그를 주도할 필요성이 있다.

## Abstract

Este ensayo examina la cuestión de la reivindicación de la identidad étnica de los indígenas latinoamericanos. A pesar del dominante mestizaje, los indígenas latinoamericanos han sufrido los prejuicios culturales y las discriminaciones socioeconómicas. Por lo tanto, desde los años 1990 los indígenas latinoamericanos empezaron a reclamar sus derechos a través de sus organizaciones basadas en su identidad étnica. Sin embargo, esta búsqueda de la identidad ha sido muy complicada por el mestizaje. Así, en este ensayo veremos las varias formas de la búsqueda de identidad en los principales países latinoamericanos en que la población indígena tiene su significado, como México, Guatemala, Bolivia, Ecuador y Perú. También, revisaremos la existencia de la población indígena de estos países en el sentido de que esta población es una de las bases principales de la reivindicación de la identidad étnica de los indígenas latinoamericanos.

**Key Words:** Identidad, Indígenas, América Latina, Población, Mestizaje  
/ 정체성, 원주민, 라틴아메리카, 인구, 메스티사헤

논문투고일자: 2010. 04. 05

심사완료일자: 2010. 04. 21

게재확정일자: 2010. 05. 03

## 참고문헌

- 김기현(2009), 「“메스티사헤” 이후의 라틴아메리카 인종주의」, *Homo Migrants*, Vol. 1, Nov., pp. 97-116.
- 마르코스(2002),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해냄.
- 주종택(2005), 「멕시코의 원주민 정책과 종족성: 메스티소와 원주민의 관계」,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8, No. 4, pp. 237-270.
- 최진숙(2007), 「과테말라에서의 “인종” 개념에 대한 역사적 고찰」,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0, No. 3, pp. 173-195.
- Adams, Richard N.(1994), “A Report on the Political Status of the Guatemalan Maya,” in Donna Lee Van Cott(ed.), *Indigenous Peoples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New York, NY: The Inter-American Dialogue, pp. 155-186.
- Beck Scott H. and Kenneth J. Mijeski(2000), “Indigena Self-Identity in Ecuador and the Rejection of Mestizaje,”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5, No. 1, pp. 119-137.
- Berghe, Pierre L. van den(1968), “Ethnic Membership and Cultural Change in Guatemala,” *Social Forces*, Vol. 46, No. 4, Jun., pp. 514-522.
- Burgos, Elizabeth(1992), *Me llamo Rogoberta Menchú y así me nació la conciencia*, México: Siglo XXI.
- Canessa, Andrew(2000), “Contesting Hybridity: Evangelistas and Kataristas in Highland Bolivia,”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32, No. 1, Feb., pp. 115-144.
- CEPAL(2006), *Pueblos indígenas y afrodescendientes de América Latina: información sociodemográfica para políticas y programas*, Santiago de Chile: Naciones Unidas.
- Choi, Jin-Sook(2009), “Variaciones de las identificaciones de los indígenas en Guatemala: una consideración del discurso del ‘mestizaje’,” Un Ensayo presentado en Conferencia Internacional de SNUILAS,

5 de julio.

- Colloredo-Mansfeld, Rudi(1998), "'Dirty Indians', Radical Indigenas, and the Political Economy of Social Difference in Modern Ecuador,"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Vol. 17, No. 2, May, pp. 185-205.
- Cojtí Cuxil, Demetrio(1997), *Ri Maya Moloj pa Iximulew: el movimiento Maya*, Guatemala: Editorial Cholsamaj.
- De la Cadena, Marisol(2000), *Indigenous Mestizos: The Politics of Race and Culture in Cuzco, Peru, 1919-1991*,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Dietz, Gunther(2004), "From Indigenismo to Zapatismo: The Struggle for a Multi-ethnic Mexican Society," in Nancy Grey Postero and Leon Zamosc(eds.), *The Struggle for Indigenous Rights in Latin America*, Oregon: Sussex Academic Press, pp. 32-80.
- Fischer, Edward(2004), "Beyond Victimization. Maya Movements in Post-War Guatemala," in Nancy Grey Postero and Leon Zamosc(eds.), *The Struggle for Indigenous Rights in Latin America*, Oregon: Sussex Academic Press, pp. 81-104.
- Gall, Olivia(2004), "Identidad, Exclusión y Racismo: reflexiones teóricas y sobre México," *Revista Mexicana de Sociología*, Vol. 66, No. 2, abril-junio, pp. 221-259.
- García, María Elena(2005), *Making Indigenous Citizens: Identity, Development, and Multicultural Activism in Peru*,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elles, Paul(2002), "Andean Culture, Indigenous Identity, and the State in Peru," in David Maybury-Lewis(ed.), *The Politics of Ethnicity: Indigenous Peoples and Latin American States*, Cambridge: David Rockefeller Center Series on Latin Americ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pp. 239-266.
- Glidden, Lisa(2007), *To be or not to be... an Indian: Ethnic Identity and*

- Political Mobilization in Ecuador and Peru*, Illinois: Draft Paper Prepared for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 Gutiérrez, Natividad(1998), "What Indians Say About Mestizos: A Critical View of a Cultural Archetype of Mexican nationalism,"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Vol. 17, No. 3, Sep., pp. 285-301.
- Hale, Charles R.(1997), "Cultural Politics of Identity in Latin America,"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26, pp. 567-590.
- \_\_\_\_\_(1999), "Travel Warning: Elite Appropriations of Hybridity, Mestizaje, Antiracism, Equality, and Other Progressive-Sounding Discourses in Highland Guatemala,"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 112, No. 445, Summer, pp. 297-315.
- \_\_\_\_\_(2004), "Rethinking Indigenous Politics in the Era of the 'Indio Permitido',"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Vol. 38, No. 2, pp. 16-21.
- Hall, Gillette and Harry Anthony Patrinos(2006), *Pueblos Indígenas, pobreza y desarrollo humano en América Latina 1994-2004*, Colombia: Banco Mundial.
- INEC(2001), *VI Censo de población y V de vivienda*, Ecuador: INEC.
- Kauffman, Craig M.(2008), *Indigenous Mobilization in the Andes: Symbols, Framing Processes and the Salience of Ethnic Identity*, San Francisco: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 Metz, Brent(1998), "Without Nation, Without Community: The Growth of Maya Nationalism among Ch'orti's of Eastern Guatemala," *Journal of Anthropological Research*, Vol. 54, No. 3, Autumn, pp. 325-350.
- Miller, Marilyn Grace(2004), *Rise and Fall of the Cosmic Race*,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 Morales, Mario Roberto(1993), "Cultura guatemalteca=cultura hibrida,"  
*Prensa Libre*, July 25.
- \_\_\_\_\_(2009), "Hacia una teoría del mestizaje intercultural diferenciado,"  
Un Ensayo presentado en Conferencia Internacional de SNUILAS,  
5 de julio.
- Van Cott, Donna Lee(2005), *From Movements to Parties in Latin America.  
The Evolution of Ethnic Politic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de, Peter(1997), *Race and Ethnicity in Latin America*, London: Pluto  
Press.
- \_\_\_\_\_(2005), "Rethinking Mestizaje: Ideology and Lived Experience,"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No. 37, pp. 239-257.
- Warren, Kay B.(1998), *Indigenous Movements and their Critics. Pan-Maya  
Activism in Guatemala*,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인터넷 자료

-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INE), Bolivia: [www.ine.gov.bo](http://www.ine.gov.bo)
-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INE), Guatemala: [www.ine.gob.gt](http://www.ine.gob.gt)
-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Censos(INEC), Ecuador:  
[www.inec.gov.ec](http://www.inec.gov.ec)
-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INEGI), México:  
[www.inegi.org.mx](http://www.inegi.org.mx)
- 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e Informática(INEI), Perú:  
[www.inei.gob.pe](http://www.inei.gob.pe)